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김 형 중
(명성여고)

《 요 약 》

이 논문은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고 고찰한 것이다. 초·중등학교 가운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활동과 내용을 각 종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립학교가 아닌 일반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내용은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종교교육과, 그리고 종교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주로 살펴보았다.

종교와 관련된 교과서 가운데서 편찬자나 집필자가 특정종교에 치우쳐서 자신의 종교를 미화하거나 남의 종교의 내용을 왜곡하여 잘못 서술한 내용도 지적하였으며, 자칫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교간의 전교(傳敎) 경쟁행위와 같은 문제점을 밝히고, 아울러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I. 한국의 초·중등학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학교가 세워진 것은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세워진 태학(太學)이다. 그 태학은 오늘 날 국립대학에 해당된다. 사학(私學)의 효시로는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경당(屨堂)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에서는 682년(신문왕 2년)에 국학(國學)이라는 학교를 세웠고, 고려에서는 992년(성종 11년)에 국자감(國子監, 충선왕 때 成均館으로 개칭)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서울에 두었고,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4부학당과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양반 자제들의 교육을 맡게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사립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글방(書堂)이 전국적으로 각 마을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근대적 학교제도 즉, 새로운 학제(學制)는 갑오개혁 다음 해(1895)에 발표된 고종황제의 교육조서(敎育詔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갔으나,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한국의 식민화가 추진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되어 갔다. 결국 한국의 근대적인 학제는 일제(日帝)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민주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어서 1949년 12월 31일 미국의 단선형(單線型) 학제를 도입한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6·3·3·4의 기간학제가 이루어졌다.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수학하며, 이어서 중학교 3년과정을 마친 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수료한 다음, 2년 과정의 전문대학이나 4년과정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기관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며 그리고 전문대학과 대학은 모두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볼 때 중학교는 전기중등교육기관이라 하겠고, 고등학교는 후기중등교육기관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연하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성별·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 ① 초등학교(국민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한다.
- ②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 ③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④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물을 도야하는 것을 각기 목적으로 하는 4단계의 정규적인 학교이다.

1985년 “문교 통계 연감”에 나타난 우리 나라 학교 수와 1995년 “한국 도시 연감”(내무부 발행)에 나타난 학교 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수는 6,528개교

에서 3,793개교로 감축된 반면에 고등학교는 1,549개교에서 1,581개교로 증설이 되었다.

학교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분교 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1983년	4,276	6,500 (900)	2,254	1,496	98 (170)
1984년	5,183	6,528 (968)	2,325	1,549	99 (186)
1995년	6,796	3,793 (128)	2,028	1,581	156 (414)

* 우리 나라 학교 수 (1983년·1984년 통계는 1985년 발행 “문교 통계 연감”에 나타난 자료이고, 1995년 통계는 “한국 도시 연감”에 나타난 자료임)

Ⅱ. 한국의 초·중등 종립학교 현황

1. 초·중등 종립학교 현황

신학문의 교육을 위하여 처음으로 세워진 근대적 학교는 1883년 원산항의 상인들과 개화파의 관리들에 의해 설립된 원산학사(元山學舍)이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육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갑오개혁 이후 고종황제의 교육조서를 계기로 한다. 다시 말해 이 교육조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각급 공립학교가 세워졌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산학사는 국·공립과 사학을 포함해서 한국근대교육사에 있어서 최초의 근대학교이다. 이어서 선교사들에 의해 배제학당(1885), 경신학교(1886), 이화학당(1886), 정신여학교(1895), 숭실학교(1897), 배화학당(1898) 등의 학교가 설립되면서 이에 자극을 받아 각지에서 또 다른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그리고 국민교육 기관으로서의 초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1895년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근대교육에 크리스티교를 선교하기 위해 설립된 미션스쿨(mission school)들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미션스쿨들은 당초

에 구미의 선진문화의 수입 창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션스쿨의 뒤를 이어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明進)학교가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에 의해 대한제국의 정부 허가를 얻어 신교육을 위한 중앙 교육기관으로서 당시의 원흥사(구 창신 국민학교 위치)에서 개교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전체 1,560여 개의 사립 중등학교 가운데 종교 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중등학교는 35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각 종립학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1995).

종교 \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총 학교 수
불 교	1	13	13	3	30
가톨릭	6	38	36	9 (3)	89 (92)
기독교	8	112	118	31 (22)	269 (291)
원불교	1	3	4	2 (1)	10 (11)
통일교	1	2	2	1	6
대순진리교	-	-	6	1	7

유교 종립학교는 성균관대학교 1개교가 있으며, 대종교에도 공민학교 1개교가 있다.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다하지 못한 학교의 공교육을 개인이나 종립 단체가 설립한 사학(종립학교도 포함)이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9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부터 이행된 고등학교 입학 추천제, 1980년부터 시행된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성적 채택 등은 결과적으로 사학 교육의 독자성 · 자율성 · 다양성을 배제시켰다. 결국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고등학교 입학 추천제는 종립학교와 종교 교육에 대한 마찰과 갈등을 을 빚어 왔다. 이와 같은 갈등과 마찰은 교육부 당국이 1988년 종교학을 고등학교에서 교양 선택과목(교육부, 1995A)¹⁾으로 가르쳐도 좋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1990년도부터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지난 날 각 종립학교에서 편법으로

1)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환경과학, 종교 등 7과목 가운데서 각급 교장의 재량에 따라 2과목 이상의 복수 과목을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선택으로 1과목을 선택하여 2단위에서 4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시해 오던 종교교육(불교시간·성경시간 등)을 교양 선택이란 정식 교과과정으로 인정 받아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립학교가 아닌 일반 사립·국공립 중등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교양 선택으로 채택하여 종교교육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중학교에서도 종교 과목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 과목으로 선정하여 종교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실시하는 제6차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채택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인정 도서)의 편찬 목차와 내용에 대한 집필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내용
I. 인간과 종교	● 생활 주변의 종교들 ● 종교적 신념과 이해 ● 궁극적 가치와의 만남 ● 종교적 인격 형성
II. 세계 문화와 종교	● 유교의 전통과 사상 ● 불교의 전통과 사상 ● 도교의 전통과 사상 ●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사상 ● 이슬람교의 전통과 사상 ● 힌두교의 전통과 사상 ● 그 밖의 종교 사상
III. 한국 문화와 종교	● 전통적인 민간 신앙 ● 유·불·도교의 수용 ●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수용 ● 한국의 민족 종교
IV. 종교 경험의 이해	● 신앙의 여러 관점 ● 종교 의식과 종교적 실천 ● 종교적 공동 생활
V. 현대 사회와 종교	● 성스러운 문헌들의 현대적 의미 ● 종교와 세속 문화와의 만남 ● 다른 종교들 간의 대화 ● 종교와 사회의 이상 실현
VI.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역사	● 종교의 경전 ● 종교의 교리 ● 종교의 역사 ● 일상 생활 속에서의 종교적 생활 ● 종교와 내일의 한국 문화

위에서 확인되듯이 각 종교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에 타종교에 대한 이해의 장(章)이 마련되고, 종교학 일반에 대한 단원이 포함되어 타종교 신앙에 대한 포용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대학 입시 제도에 따른 입시 과목 외의 종교 과목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이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공립 학교에서의 특정 종파에 대한 종교교육을 금지해 왔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31조 ①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헌법 제 31조 ④항), 그리고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법 시행령 제5조 ②항)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가정이나 학교, 종교 단체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학교 교육에서는 도덕(윤리)이나 역사 교과서에서 “종교 일반”에 대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종교교육을 목표로 삼아 설립된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건학이념에 따라 처음부터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전교)을 실시하였다. 특정 종교의 전교(傳敎)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에게 종교적 심성을 길러 주고, 다른 종교를 이해하며 서로 접촉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학교의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입시 제도의 평준화로 추첨 배정을 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불교 종립학교의 종교 활동

불교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은 불교정신인 지혜와 자비에 근거한 인간의 자기 완성과 불국정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인간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중등 종립학교 27개교는 은석초등학교를 제외하

고는 모든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종교(불교)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 교학 시간, 종교 시간, 불교 시간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이 과목은 교법사(校法師)가 담당하여 교실 또는 교내 법당을 이용하여 주 1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기록부에는 단위와 이수 여부만 기록하고 평가는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불교 교과서의 내용은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하여 근본 교리 및 대승 교리, 불교 역사, 불교 윤리, 불교 문화와 예술, 수행 생활, 불교 설화 등으로 되어 있다.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 10분 정도 “선정(禪定)의 시간”을 갖는다. 학교의 각종 행사는 불교의식으로 집행한다. 희망 학생들에 의해서 구성된 불교학생회에서는 매주 1회 교내 법당에서 정기 법회를 갖는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는 불교 수련대회를 실시한다.

3. 기독교 종립학교의 종교 활동

기독교 종립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학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종교(기독교) 과목은 교목(校牧)에 의해서 교실 또는 학교 교회에서 주 1시간씩 정규 과목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종교 교과서의 내용은 성경이 중심이 된다. 구약, 신약, 교회사 등의 내용이다. 학교의 모든 행사는 예외 없이 예배(禮拜) 형식으로 실시한다. 즉 교목의 인도 아래 예배 의식으로 진행된다.

종교 과목의 정규 시간 외에 학년 별로 요일을 정해 놓고 주 1회 정기(주간) 예배를 실시한다. 학생은 자신의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그 학년의 선교부장 중에서 사회자와 지배를 뽑아 학생 중심의 예배를 한다. 물론 설교는 교목이 한다. 절기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되며 심령을 새롭게 하고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심령 수양회도 열린다.

Ⅲ. 한국 초·중등학교의 종교교육

1.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종교교육

특별활동은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으로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과 개성 및 소질의 계발, 신장을 도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의 내용은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 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특별활동의 운영은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5B). 특별 활동은 교과과정에서 이수 단위가 16단위로 되어 있다. 3년 동안 주 1회 학급활동(H.R.)과 클럽활동(C.A.)을 실시해야 하고 단체 활동(4단위)도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 단체에서 전교(傳敎)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사학)가 아닌 국·공립 학교에서는 “어느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교육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특정 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 그러나 종교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에 나타난 교과목을 통하여 특정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의 일반에 대한 교양적 이해와 올바른 종교인의 자세에 대한 종교교육을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종교반”에 자유롭게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공립 학교에서는 종교간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종교반”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불교반, 기독교반, 카톨릭반 등의 이름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합창반이나 R.C.Y, 스카우트, 봉사반, 전통문화 애호반 등의 단체를 통해서 신앙이 깊은 교사를 지도 교사로하여 종교 활동을 병행하기도 한다.

1995년 12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하는 “법회와 설법” 8호에 의하면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불교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37개교와 부산 소재 고등학교 38개를 비롯하여 159개교에서 불교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종교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교과서에 나타난 교과목을 통한 종교교육

학교 교육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마찬가지로 각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종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초등학교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의 교과목은 음악·사회·도덕·국어 등의 과목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도덕·윤리·국사·국어·세계사 등의 과목이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는 데는 지면의 제약이 있으므로 도덕·윤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초등학교 도덕·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

초등학교 도덕 6-2(1995년 발행)의 “4.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란 대단원 가운데 소단원 “큰 가르침”에 불교의 “석가모니”와 기독교의 “예수”라는 단원이 있다. 그리고 소단원 “잘못과 용서”와 “늙어가는 삶” 두 단원에 걸쳐 레미제라블 즉, 장발장 이야기가 나온다. “큰 가르침”의 단원에서 석가와 예수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분량으로 설명되고 있다. 석가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62쪽에 보면 다음과 같다.

석가는 인도의 북쪽에 있는 카필라성의 성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을 풀기 위하여 29세가 되는 해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 오랜 고행 끝에 석가는 드디어 크게 깨달았습니다. ‘살고 죽는 데 대한 생각을 없애 버리면, 쓸데 없는 욕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욕심과 두려움을 버리면, 맑은 마음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으로 석가가 깨달은 내용으로 “살고 죽는 데 대한 생각을 없애면 욕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기독교 예수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64-65쪽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아니,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조용히 하는 말이었으나, 모든 이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가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64쪽). …… 예수는 점차 구원자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러

나 그럴수록 그는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65쪽)

사회 5-1(1996년 발행), 대단원 “3. 우리의 문화 생활” 중 중단원 “(2) 종교 생활 (141-158쪽)”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소단원 ① 원시 신앙, ② 불교, ③ 유교, ④ 그리스도교, ⑤ 새로 일어난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나오고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의 서술은 외형상으로는 종교적 형평을 이루려는 격식을 갖추었다. 예를 들면 각 종교를 서술하는데 분량을 똑같이 한다든지, 각 종교의 부정적인 서술을 삼가 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엿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의 편찬자나 집필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종교에 치우쳐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

또 초등 학교 내에서 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종교 집단의 선교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²⁾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리다. 교사로부터 학습 받는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선별하여 수용할 능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도덕적 감화나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업 시간에 얼마든지 특정 종교를 전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적어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는 교육의 핵심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종교 내용이 나오는 교과서를 빌미로 특정 종교를 전교할 수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사

3) 교사의 선교 행위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1996년 3월 27일 <현대불교 신문>에 “선생님이 교실에서 선교행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경기도 포천군 송우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담당학급 어린이를 상대로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게 하였다. 교회를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체벌을 가했다.”
- ② 1996년 10월 24일 <법보신문>의 보도 내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초등학교 1학년 4반 학급담임 인경구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를 강요하였고 학교 행사 때는 학부모들에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강요하여 말쑥이 되었다. 불교계의 항의에 따라 고양시 교육청은 교장과 인경구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고,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서 전국의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전교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가 교과서에 나오는 종교 관련 내용을 지도할 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종교의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타종교의 교리를 폄하하거나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종교와 관련된 내용인 중·고등학교에서는 도덕·윤리·국사·국어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듯이, 초등학교에서도 도덕·사회·국어·생활의 길잡이 등 교과서에서 종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도덕 과목은 3학년 1학기부터 있다. 1·2학년에서는 “바른생활”이란 교과서가 있다. 종교에 관련된 직접적인 단원은 도덕 6-2, 4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50-66쪽) 뿐이다.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도덕과목보다는 사회과목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특정 종교에 치우쳐서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3-1(1996년 3월 1일 초판 발행) 66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제6장 3절에 나오는 성경 문구가 나온다. 단원이 끝나는 책의 끝 부분 여백에다 그 단원의 내용을 요약한 격언이나 알맞은 문구를 싣게 되는데, 구교과서(1995년 발행 이전 교과서)에 없었던 내용인 “이 음식은 적십자 봉사단원의 사랑입니다”라는 글귀와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진이 함께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도덕 4-2(1995년 발행), 49쪽에서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문구가 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성구를 교과서에서 표어처럼 포장해 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도덕(1학년용, 1995년 초판 발행), 대단원 “I. 삶과 도덕” 중, 중단원 “4. 인물 학습(62-68쪽)”에 소단원으로 (1) 원효 (2) 석가모니의 단원이 나온다. 이 단원에서는 원효와 석가모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도덕(1학년용, 1995년 초판 발행), 대단원 “Ⅲ. 사회와 도덕” 중 “4. 인물학습 가운데 소단원 (1) 이이(울곡) (2) 예수”의 단원이 나온다. 또 도덕(2학년용) 대단원 “Ⅲ. 현대 사회와 도덕”

중 중단원 “2. 현대 사회와 청소년 문제”에 딸린 소단원 “(4) 청소년과 종교 생활”이란 단원에서 부모와 종교가 다른 한 중학생이 겪고 있는 갈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신앙의 대립이라고 한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거기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부모님들도 역시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다.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알고는 한 집안에 두 가지 종교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내용은 크리스트교 상담집에나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불교는 기성세대인 부모들이나 믿는 종교이고, 크리스트교는 신세대 청소년들이 신앙하는 종교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각 종교를 사상별로 내용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상	단 원 명	인용인물	주제 및 관련 덕목	비 고
유 교 사 상	도덕적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맹자	사단(四端, 仁義禮智)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공자	지혜로운 삶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		이상적 인간으로서 군자(君子)	
	//		이상적 인간으로서 선	
	//	이황	도덕적인 삶	자성록
	청소년기의 중요성		청소년기의 중요성	명심보감
	보람찬 학교 생활		배움의 중요성	명심보감
	가정·학교 생활과 예절의 중요성		배움의 중요성	
	친족간의 예절	이율곡	친족간의 사랑	
	효도와 경로	공자	효의 근본 정신	
	//	맹자	경로	
	//		경로	효경
	친구간의 예절과 도리	공자	친구 선택의 중요성	
	전통 도덕의 기본 정신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오륜(五倫)	
	전통 도덕의 내용	이율곡	절제	격몽요결
	//		오륜의 봉우유신(朋友有信)	
	//	공자	의리(義理)	
	//	황희	청렴	
불 교 사 상	서로 믿고 양보하는 사회	정홍순	약속의 중요성	
	우리 민족의 얼		선비정신(의리와 지조, 애국정신)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		이상적 인간으로서 보살(菩薩)	
	//	원효	믿음(信), 앎(智), 행(行)	
	전통 도덕의 기본 정신	원광	세속오계→생명존중 사상, 호국 불교정신	
기 독 교	전통 도덕의 내용		세속오계 중 교우이신(交友以信)	
	우리 민족의 얼		세속오계의 살생유택→ 생명존중 사상	
	시민 사회와 도덕	칼뱅	예정설→근검, 절약과 기업정신	
	오늘날의 시민 윤리의 모습		직업소명설(독일)	
서 양 사 상	양심과 도덕	칸트	양심의 역할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		이상적 인간으로서 신사	
	나라의 형성과 하는 일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사회성	
고 유 신 앙	전통 도덕의 기본 정신		애니미즘, 자연숭배, 샤머니즘→경천사상	
	//		단군신화의 홍익인간→인간존중 사상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단군신화	

도덕 교과서에서 유교를 통해서 가정의 윤리, 사회 생활의 윤리를 서술하였고, 불교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윤리적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오늘날의 시민사회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3)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1종 도서)에 처음 종교 관련 내용이 단원으로 설정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기(1974-1981년)인 1979년에 초판 간행된 “국민 윤리” - “국민 윤리”와 “자유 수호의 길”로 나누어졌던 교과서가 단행본으로 통합됨 - 이다. 대단원 “Ⅱ. 생활의 예지” 중 중단원 “1. 종교와 인생(37-72쪽) 가운데 소단원 “(1) 인간의 종교적 욕구, (2) 종교의 본질, (3) 건전한 종교적 생활”이라 하여 3개의 소단원이 수록되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종교 사상가인 원효 스님의 “하나의 마음(一心)” 사상이 실려 있다.

사람은 원래 영원하고 포괄적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을 그 근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의 마음과 생명을 거역하고 감각적 욕구와 감정의 노예가 됨으로써 스스로 세계를 더럽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은 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그 마음을 바로 잡아 본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41쪽).

이런 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8년)에 의해 편찬된 1982년에 초판 발행된 국민 윤리 교과서에서는 전면 삭제되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서구의 특정 종교관에 치우쳐서 편찬되어 당시 왜곡 교과서로서 문제가 야기되었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종교 관련 단원이 신설되었다. 대단원 “Ⅱ. 우리 겨레의 사상적 전통” 중 중단원 “2. 외래 사상과 윤리” 가운데 소단원 “(1) 불교의 윤리 (2) 유학의 윤리 (3) 그리스도교의 윤리”의 단원과 대단원 “Ⅲ. 문화와 윤리” 중 중단원 “4. 종교와 인생” 가운데 소단원 “(1) 종교의 본질, (2) 종교의 윤리성과 건전한 종교 생활, (3) 공산 사회에서의 종교”라는 단원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종교 관련 내용을 싣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서구의 특정 종교에 치우친 정의를 하고 있

다. “인간이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종교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한다.”라고 하는가 하면, 연구 문제 5에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과 종교와의 관계를 크리스티교와 관련시켜 설명해 보자”고 함으로써 특정 종교를 노골적으로 선교한 교과서였다.

현행 윤리 교과서(1996년 발행)에서는 초월자, 절대자, 신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 “절대자나 초월자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자나 초월자를 대상화하여 인식하려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인간의 자세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라고 하여, 은연중에 유신론적 절대신의 종교관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절대자·초월자)에 대한 존재 문제보다도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강조하였다.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존재)이므로 신이 존재한다. 또는 신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동양의 종교 가운데 특히 불교와 유교는 신(神)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이다.

IV.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

우리 나라는 유교·불교·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사회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종교의 가치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종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영국·독일·에스파냐·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종교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립이 엄정하며 국공립 학교 기관에서 특정 종교를 교육하는 것은 법률로서 금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조짐이다. 자칫 종교 집단의 경쟁적 전교 정책에 따라 학교가 전교 경쟁의 장이 될 수가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종교 교육이 교육청의 감독과 지도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가는 학교는 종교의 집단 이기주의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 끝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안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와 관련된 교과서를 편찬하거나 집필할 때 특정 종교에 치우쳐서 자신의 종교를 미화하여 서술하거나 다른 종교 신자인 자가 남의 종교의 내용을 집필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처럼 주요 종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대표들과 종교학자들로 구성된 “종교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서를 편찬하고 집필하는데 자문과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특정 종교의 교리나 의식은 원칙적으로 종교 기관에 맡기고, 학교에서는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종교관을 갖도록 종교교육을 한다.

셋째, 종교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중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결코 복음주의나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개종토록 하는 식의 종교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입시 제도의 평준화로 추천 배정을 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입학하게 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교사들을 만나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다 (선교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 명령)”고 한 법처럼 학교 내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나 타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가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막아야 한다.

동서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종교간의 갈등”이다. 우리 나라도 “종교의 박람회장”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서로간의 갈등과 불화로 사회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올바른 종교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석주(1983). 한국 종교교육제도 조사 연구.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소.
- 강환국(共譯)(1981). 아시아 諸國의 도덕교육(Moral Education in Asia). 서울: 배영사.
- 교육부(1993). 중학교 도덕 1, 2, 3.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4). 고등학교 국민윤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5A).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5B).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5C). 초등학교 도덕(3·4·5·6학년용).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6A). 고등학교 윤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6B). 초등학교 사회(3·4·5·6학년용).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1995).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 서울: 종립학교관리위원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교육부(1995). 종교(기독교) 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박선영(1981).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사.
- 박선영(1983). 불교와 교육사회. 서울: 보림사.
- 이종국(1992). 한국의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교육개발원(1994). 중학교 도덕(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1994).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동아출판사.
- 한국종교사회연구소(1991).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서울: 민족문화사.
- Allan Harris(1985). *Teaching Morality and Relig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Gabriel Moran(1983).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 Minnesota: Winston Press.
- John Sealey(1985).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